

캄보디아 선교행전 55

정용희 김정숙 선교사 정기 기도서신 2024.6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8)

무더위가 물러가고 우기가 찾아온 캄보디아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동역자님께 문안드립니다. 선교행전을 통해 지난 3개월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와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드디어 인터넷

어느 날, 인터넷 통신회사에서 인터넷을 설치하겠느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5년 전에 통신회사에 요청했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만의 인터넷 설치를 위해서 10킬로 이상의 선을 끌고 왔다고 하니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았습시다. 할렐루야!



부활절

이번 부활절을 위해서 교사들, 특히 유치원 교사 짜리야가 한달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바쁜 중에도, 반별로 찬양과 율동, 성구 암송, 또, 부활절 성극을 함께 준비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했습니다. 성극은 날로 발전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정전이 되었지만 마침 마을주민이 발전기가 있어서 준비한 모든 것을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부활절 선물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인해 구의교회에서 지원해준 모자와 옷을 나누었습니다. 또, 후원해 주신 장학금과 후원금, 저희 교회헌금으로 학생들과 홀로 되신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풍성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수박밭

저희 교회는 매주 수박을 간식으로 줍니다. 어느 날, 곳곳에 수박 줄기가 자라고 노란 꽃이 피더니,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유치원 앞



마당은 수박밭이 되어, 지나가는 사람 모두 열매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첫 수박을 따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고, 교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얼마 후 또 자란 수박을 따서, 유치원 교사들과 간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교사들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나머지 수박이 자라면 누구에게 나눠줄까 생각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줄줄이 맺히는 수박 열매처럼, 가가호호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품에교회 단기선교

캄보디아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도 주품에교회 단기팀이 저희 교회를 찾아 주셨습니다. 올해 캄보디아 설날은 가족단위로 놀러가는 집들이 많아 유난히 조용했는데, 동네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한국 찬양 율동과 게임, 그리고 각종 활동 시간으로 기쁜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야외수영장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인들과 함께 한 새벽기도는 서로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더위에 정성껏 섬겨준 선교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극심한 올해, 캄보디아도 관측온도가 45도, 체감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150년 만에 오는 무더위라고 하더니, 거실에 있는 책상까지 뜨거워져 앉아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사수련회

5월, 공휴일을 맞이하여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두 모여 교사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교사로서의 자질과 특권, 책임감 등을 배우고 토론하고 발표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은 삼겹살과 김치로 한국식 식사를 아주 맛있게 했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해 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공휴일 맞이 성경읽기

또 한 번의 공휴일을 맞이해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읽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교사들이 진행을 체계적으로 잘 해서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주일



단기팀에 오셨던 어느 권사님의 말씀처럼 어린이는 캄보디아의 희망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온 교인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색연필 세트와 색칠 공책, 연필과 볼펜, 손톱깎기와 머리끈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또, 교사들이 협력하여 준비한 게임을 하면서 모두 행복했습니다. 예배 후 여러 어른들이 성경 공부는 못하고 가겠다고 합니다. 동네 잔치에 가야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못 온 이유를 물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잔치 때문이라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신실한 믿음 갖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중 성경공부

주중에 학생들에게 말씀을 교육시킨 후, 후유증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평소 예배에 잘 보내던 부모, 조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공부를 하니까 주일 예배에 아예 참석을 하지 못하게 대문을 잠그는 일까지도 생겼습니다. 가능할 때만 몰래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니, 가족 모두 영접기도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파숫, 파나엣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세례를 받고 싶은 친구들 중 몇몇도 부모의 반대로 못 받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대도 있지만, 감사하게도, 주중 성경공부 그룹들은 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두가 성실히 임하고 참 하나님을 만나, 주님의 일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큐티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매일 꾸준히 좋은 습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세레이언다엘 친구들

새로 개척한 세레이언다엘 교회 친구들은 성실과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꾸준히 나오고, 성가대, 성구암송도 열심히 합니다. 어른인 위볼을 포함해서 모두 8명의 성도 전원이 그림 성경 1권을 한 번에 다 읽기도 하고, 시편 113편 암송도 다 하였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믿음과 부흥을 소망해 봅니다.



유치원의 두 교사

나이 어린 교사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했고, 엄마뻘? 되는 교사가 신앙생활을 더 짧게 했습니다. 성격차로 몇 달 안에 2번이나 어른 교사가 잠수를 탔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잘 맞는다고 하면서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가 협력하기 어려운데 서로가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캄보디아 새해 선물을 정성스레 준비해 준 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배수로

작년 우기 때 빗물이 교회안으로 들어갈 듯 말 듯 조마조마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염려가 전혀 없게 되어 감사합니다. 마침 올 해 3월에 구의교회 단기팀이 오셔서 배수로를 설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배수로 덕분에 교회 마당의 빗물이 아주 빠르게 잘 빠져 나갑니다. 교회 예배당 입구엔 빗물 조차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모든



것을 완비해 주신 하나님과 구의 교회 단기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달란트 잔치

지난 봄에 저희교회를 방문했던 구의교회와 주품에교회가 제공해주신 물품으로 이번 상반기 달란트 잔치를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6개월간 예배참여, 봉사, 성구암송, 전도, 헌금 등으로 모여진 달란트로 저마다 원하는 물품을 기쁘게 한아름 안고 가는 모습에 저희도 감사함이 넘칩니다.



단기팀

올 7월과 8월에는 4개교회로부터 5개의 단기팀이 저희 교회를 방문합니다. 모두 하루 혹은 삼 일의 간격으로 이어진 상황이어서 6주간 매주 단기팀 사역이 진행됩니다. 집중해서 교회 주변 마을을 전도할 예정입니다. 성령께서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헌신으로까지 가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칭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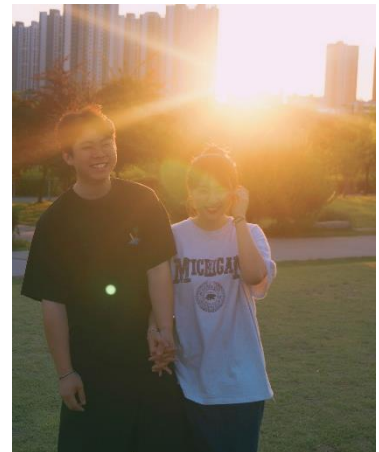
쓰라이원(초등부 4학년) : 쓰라이원은 언제부터인가 유치원 뒷자리에 앉아 숙제를 하더니, 이제는 유치원 보조교사가 되어 어린 동생들을 돌봐주고, 전도, 성경공부도 아주 즐거워합니다.

레아쓰마이(고등부 10학년) : 레아쓰마이는 성경공부하러 교회에 먼저 오면 무조건 빗자루부터 잡고 청소를 합니다. 굿은 일들을 아무 말없이 술선수범하는 말언니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짜리야(유치원교사), 씨어우봉(고등부9학년), 티어라(고등부 11학년) : 토욜밤 성경공부 끝나고 늦은 시간임에도, 조금 먼 탄동네에 혼자 가는 친구를 위해 3명에서 동행을 해 주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남매 이야기

하은이 - '하은인 언제가 제일 좋아?' 라고 물었더니 '진수랑 있을때'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은이가 한국에 홀로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은인 내년 6월에 하길 원했는데,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날로 정하다 보니, 올 12월 28일과 내년 1월 딱 2일 뿐이어서, 부득이하게 12월 28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수기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양가가 다 선교사라, 둘만 한국에서 결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중에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도 잘 섬기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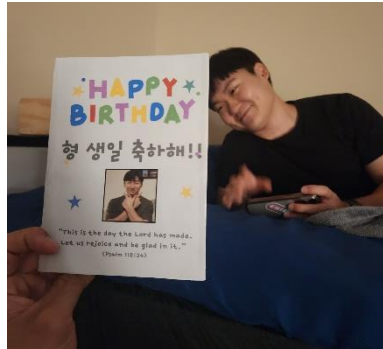
하영이 - 이달 6월로 하영이가 병원을 휴직하고 8월에 다시 펜사콜라 학교로 돌아갑니다. 미 정부의 영주권 심사 지체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대학원 과정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학비가 무료입니다. 학교에서 2년간 학부생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학교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낼 예정입니다. 2년내 영주권이 나와

다시 일하던 병원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재하 - 동생 재영이 생일을 친구들과 멋지게 챙겨준 재하. 본인의 생일 잔치를 받고 너무 기뻐합니다. 생일이 동생보다 2일 늦은 관계로 어릴 때, 동생 생일에 함께 생일축하 잔치를 했는데, 재하가 그것을 속상해 했었습니다. 엄마가 그 날 화까지 냈었다니, 속이 많이 상했었겠지요? (2번밖에 따로 안했다고 해서, 세보니 더 많습니다. 소리 재하) 전과목 A학점,



한 학기의 프로젝트인 자동차 만들어서 경주하기를 재하팀이 1등을 했는데. 달린 거리가 역사상 2위라고 합니다. 열심히 한 재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신분보장해 주는 곳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려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제 4학년이 되어, 1년이 남았는데, 주님과 더 깊은 교제 나누고, 졸업후 소명에 맞는 직장 and 비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재영 - 컴퓨터 과학과로 전과한 재영이가 형의 생일에 멋진 생일 책자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할 때가 교회에 있을 때라고

말하는 재영이.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일과 목요일에 드림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고민을 기도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 1) 단기팀 사역을 위해서 (새순교회 웨이브 청년팀, 장충교회 청년팀, 장충교회 교구팀, 수영로교회 교구팀, 신반포교회 장년팀)— 전도심방을 통해 열린 가정에 복음이 전달되고 결신가정이 나타나길/ 각각의 성경학교, 의료교육, 어학당, 벽화사역, 마을축제, 노인초청축제, 바닷가 아웃팅, 세례식 등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안전을 위해서
- 2) 단기팀 사역 후 후속조치들이 잘 이뤄져서 교회부흥이 이뤄지도록
- 3) 올해 교회의 목표가 가족 복음화인데, 부모와 조부모들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용기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하반기엔 결신 가정들이 나타나기를
- 4) 저희 부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아내가 이명이 생겨서 치료중인데 속히 완쾌되기를
- 5) 하은이 결혼 준비(식장, 신혼 여행등)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하영이 좋은 룸메이트와 교수님 만나도록/ 재하, 재영- 아르바이트 안전하게, 장학금, 학비
- 6)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들의 건강과 믿음위해
- 7) 모든 동역자님들 가정과 사업의 형통함을 위해

후원계좌 : 440290-29-001311 국민은행 정용희 (연말정산/소득공제)

045-24-0383-941 국민은행 정용희 (장학금 후원)

연락처 : +855-77-995-337